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영생관

칼빈의 요한문헌 주석을 중심으로

Eternal Life in the Light of the Reformed Life Theology Centered on Calvin's Commentaries on John's Gospel and Letters

문병호(Byung Ho Mun)

충신대학교, 조직신학

I.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적실성

“개혁주의생명신학”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일고가 필요하다. 필자는 개혁주의를 개혁신학의 교회-역사적 적용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개혁신학이라고 함은 칼빈신학과 그것을 계승하여 심화시킨 역사적 개혁주의 신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칼빈신학은 단지 밑그림에 그치지 않고 그 자체로 일가를 이룬 개혁신학의 효시(嚆矢)였다.

개혁신학은 생명신학이다. 그것은 영생의 언약과 그 성취로서의 의의 전가를 본질로 한다. 개혁주의 신학을 개혁신학이라고 할진대,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는 호칭은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기독교 신학은 구원의 계시를 믿음으로 수납하여 종합화, 체계화하는 생명의 신학이다. 참 신학은 참 생명의 신학 곧 영생의 신학이다. 생명을 차치한 신학이 없다.¹⁾ 그러므

1) 신학의 학문성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신학 혹은 계시의 원리(principia)라는 개념으로서 전개되었다. 그것은 먼저 존재의 원리(principium essendi)를 논한다. 이는 하나님의 계시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하나님의 자기계시를 의미한다. 그리고 인식의 원리(principium cognoscendi)을

로 “생명신학”이라는 용어 자체도 그 신학이 기독교 신학을 의미하는 이상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개혁주의생명신학”이라는 개념이 강의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논외로 한다면 그 고유한 적실성을 찾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생명신학”이라는 말은 오늘날 거의 고유명사화 되었다. 그것은 총체적 “생명 현상”을 다루는 신학으로서, 생태신학 혹은 환경신학으로서 특정화되기도 한다. “생명신학”은 모든 생물의 생명 현상을 생기(生氣)적, 생리(生理)적, 생활(生活)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경향을 띤다.² “생명신학”은 자연신학적 입장에서 서서 구원을 우주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논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타락, 그로 말미암은 사망과 전적인 무능과 오염, 그리고 대리적 속죄라는 개념이 자리할 여지가 없다. “생명신학”은 초대 교회에서 영지주의를 반박하며 전개되었던 창조론과는 그 기본적 전제부터가 사뭇 다르다. 정통 교부들이 전개한 창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성경적 가르침을 변호하기 위한 것이었다.³ 그리하여 그것이 자연히 속죄론과 구원론으로 이어진 반면에, “생명신학”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도

논한다. 이는 다시 외적 인식의 원리로서 성경, 내적 인식의 원리로서 성령과 믿음을 다룬다. 이러한 이해는 신학이 생명 구원의 신학이라는 점을 전제한다. Cf. Abraham Kuyper, *Principles of Sacred Theology*, tr. J. Hendrik De Vries (Grand Rapids: Eerdmans, 1980), 341 ff.; Herman Bavinck, *Reformed Dogmatics, Volume 1: Prolegomena*, ed. John Bolt, tr. John Vriend (Grand Rapids: Baker, 2003), 89, 207ff.

- 2) “생명신학”은 대체로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을 세 주체로 보고 그 상호 관계를 논하는데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생명을 신적 제 현상으로 보고 계시와 창조의 완성으로써 하나님의 완성을 말하고자 하는 과정신학적 입장에서 주로 다루어진다. Cf. Sallie McFague, *Models of God: Theology for an Ecological, Nuclear Age* (Philadelphia: Fortress, 1987); Kim Sukho, “The Relationship between Ultimate Reality, Human Being and Nature in Korea: A Comparison of the Ecological Theologies of Chiha Kim (1941-), Pomnyun (1953-) and Hyunju Lee (1944-).” 272-276.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Edinburgh, 2004.
- 3) Cf. Athanasius, *De Incarnatione*, in P. Schaff and H. Wace, ed., *A Select Library of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vol. 4: *St Athanasius: Select Works and Letters*, 2nd series (Grand Rapids: Eerdmans, 1980), 31-67.

외시한 창조론적 구원론에 편향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회자되는 “생명신학”은 “성육신 신학,” “성례 신학” 등의 용례와 다름없이 특정한 인본주의적 한 경향을 표현하고 있다. “성육신 신학”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역사성을 무시하거나 부인하고 모든 상징의 육화 혹은 체화가 성육신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하여 성육신을 관념의 우주적 체현 과정으로 이해하고, 그런 관점에서 성육신의 과정성과 점진성을 주장한다.⁴ 로마 가톨릭의 제 2차 바티칸 공회 이후 흥기한 “성례 신학”은 가시적 표징 자체를 신학의 중심으로 여기는 경향을 대변한다. 교회는 단지 성례를 거행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성례로서 여겨진다. 그러므로 오직 가시적 교회만을 인정한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을 넘어서서 가시적인 것으로서 교회적 의미가 있지만 하면 모두 성례라고 치부된다.⁵ 심지어 주님의 사역도 일종의 성례적 표징으로 치부된다. 오늘날 WCC 신학의 문제점은 이러한 입장에서부터 기인한다.⁶

“생명신학”에서 말하는 “생명” 개념은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 신학적 개념인 “영생”과는 확연히 다르다. 영생은 언약신학적 개념이다. 그것은 최초의 언약에 대한 순종을 조건으로 약속된 것이었는데 타락 후에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백성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구원의 열매이다. 영생은 또한 속죄론적 개념이다. 그것은 주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치르신

4)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사회적인 의미로서 해석되어야 할 모델로 파악하는 군톤의 입장도 이러한 경향의 일단을 보인다. Cf. Colin E. Gunton, *The Actuality of Atonement: A Study of Metaphor, Rationality and the Christian Tradition* (Edinburgh: T. & T. Clark, 1988). 군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Cf. Colin E. Gunton, *Christ and Creation* (Carlisle, UK: Paternoster, 1992), 69-98, 특히 93-98.

5) Cf. Lewis B. Smedes, *All Things Made New: A Theology of Man's Union with Christ* (Grand Rapids: Eerdmans, 1970), 13-42. 본서는 기존의 제한된 성례론적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아니라 기독교론적으로 이해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함.

6) Cf. 줄고. 문병호, “비(非)성경적, 반(反)교리적: WCC의 가시적 교회일치론 비판,” 『역사신학논총』19 (2010): 40-61.

공로 혹은 의의 가치 곧 값을 의미한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 전 아담과 맺은 첫 번째 언약에는 이러한 속죄론적인 의미가 없다. 그러나 타락한 인류와 맺은 은혜언약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말미암은 거듭남과 함께 죄사함을 내포한다. 영생은 이렇듯 언약적-속죄론적 관점에서, 달리 말하면, 구속사적-구원론적 관점에서 통시적이며 공시적으로 고찰되어야 한다.⁷ 성경적 영생 개념은 육체적 생명으로 역사적 의미를 획득하는 그러한 실존적 삶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⁸

영생은 오직 성경에만 고유한 개념이다.⁹ 성경에서는 대체로 생명이라는 말로써 영생을 뜻한다. 특히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대속적 은총으로서 제시될 때는 예외 없이 그것이 영생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성경적 생명 혹은 영생은 육체적인 생명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첫 언약의 약속으로 제시하신 영생은 시원적 불사(不死)와는 다른 것이었다. 영생은 언약의 약속으로 주신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요 후사로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사실 자체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원히 죽지 않음은 단지 영생의 한 속성에 불과하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첫 언약 때부터 순종에 대한 대가로서 약속하신 것이었다. 불순종한 인류는 영생을 누리지 못했으며 사망에 속하게 되었다. 사망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함을 뜻한다. 영생은 언약의 약속으로

7) Cf. Herman Witsius, *The Economy of the Covenants between God and Man: Comprehending A Complete Body of Divinity*, vol. 1 (Phillipsburg, NJ: Den Dulk Christian Foundation, 1990, rep.), 71-82. 본서는 De Oeconomia Foederum Dei cum hominibus라는 제하에 1677년에 출판됨.

8) Cf. Gordon D. Kaufman, *Jesus and Creativity*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6), 63-88. 저자는 인간을 "biohistorical beings"라고 전제하면서 인간의 자연적 특성과 역사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9) 다음 책은 영생을 종교철학적으로 접근하였으나 신학적 결론에 이른다. Cf. Baron Friedrich Von Hügel, *Eternal Life: A Study of Its Implications and Applications* (T. & T. Clark, 1912), 381-396.

서 제시된 것이며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하여서 성도에게 주어진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신 모든 의가 곧 영생의 값이다. 영생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모태에서부터 사람으로 조성되셔서 죽음으로 다 이루시기 까지 사신 전체 생의 가치를 다 포함한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주님의 생은 전적으로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생명신학”이라는 영역이 여러모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격적 생명과 더불어 우주적 생명, 개별자의 삶보다 공동체의 삶을 돌아보는 인식을 환기시켰다. 그러나 “생명신학”의 비성경적, 탈성경적 사상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영생은 도외시하고 우주적 생명 개념을 이교적으로 승화시키려는 경향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영생의 삶보다는 현세적 삶에 치중하게 되는 심리주의, 정황주의, 윤리주의를 필연적으로 낳을 수밖에 없었다. 언약에 따른 자녀의 삶을 단번에 영원히 인치는 법정적 칭의는 단지 예비적 통관절차 같이 폄하되고 성화에 주목한다고는 하되 그것도 오해하여 단지 세속적 진보만을 강조하는 조류가 초래되었다. 진정 작금 기독교 신학은 성경의 고유한 가르침인 영생의 개념을 다시금 신중히 파악하고 심화시켜 가야 할 신학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생이 육체적 생명에, 위의 것이 땅의 것에 길을 내어줄 때, 기독교는 마땅한 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개혁주의생명신학”이라는 개념의 적실성을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¹⁰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성경적 생명 개념 즉 영생 개념을 깊이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필자가 개혁신학의 선구자 칼빈의 요한문헌 주석을 통하여서 그의 영생관을 다루고자 하는 취지가 여기에 있다. 요한문헌은 그 자체로 영생에 관

10) 한국교회에 있어서의 생명신학의 학문성에 관해서, cf. Sang Gyo Lee, “Reformed Life Theology and Korean Church: Is Theology a Wissenschaft or Leben?” *Life and Word* 1 (2010): 69-95.

한 귀한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¹¹ 특히 영생을 기독교론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그 언약적, 속죄론적 의미를 잘 부각시키고 있다. 본고에서 필자는 요한문헌을 통하여서 영생의 세 관점을 존재적, 인식적, 윤리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성경적 영생관을 일고함으로써 “개혁주의생명신학”의 가치와 폭을 우선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이는 우리가 중심 논제를 다루는데 필요한 안목을 제시할 것이다.

II. 성경적 영생관: “생명의 주”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는 영생에 대한 구속사적-구원론적 접근의 성경적 당위성에 대해서 말했다. 사실 이러한 접근은 성경 자체의 가르침이기도 하다. 성경은 언약의 관점에서 구속사를, 속죄론의 관점에서 구원론을 전하고 있다. 언약신학은 영원 전의 삼위 하나님의 구원협약에 따른 제 2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역사상 약속되고 성취되었음을 가르친다. 그리고 속죄론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의의 성취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논한다. 그러므로 구속사적-구원론적 관점, 즉 언약신학적-속죄론적 관점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서 생명을 부여하시는 대속 사역을 역사상 다 이루시고 지금도 그 의를 전가하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중보하심에 있다. 칼빈의 요한복음 주석을 통하여서 영생의 개념과 가치와 역사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보기 전에 이곳에서 먼저 “생명의 주”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일고한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셔서 하나님과 인류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

11) Cf. Von Hügel, *Eternal Life: A Study of Its Implications and Applications*, 73-80.

라 타락한 우주를 회복시키셨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께서 친히 사람이 되사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나타났다(요 1:14, 17). 진리는 계시요, 말씀이요, 드러내심이다. 은혜는 이루심이요, 구원이요, 삼으심이다. 주님께서 선포하심은 곧 성취를 의미한다. 즉 드러내심이 이루심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가르치심은 권위 있는 자의 것과 같았다(마 7:29). 주님 자신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셨다(요 14:6). 주님께서 ‘생명의 길’이시며 ‘생명의 진리’였다. 주님께서 오직 “우리를 위해서” 나셨으며, 사셨으며, 죽으셨으며, 다시 사셨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그 생명은 죽을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영원히 사는 것 곧 영생이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행 2:11)을 다 이루셨다(요 19:30).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 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내려 주심으로써(행 2:33) 영원하신 증보자의 사역을 감당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신인양성의 증보를 계속하심으로써 성도들을 가르치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시며, 성도들의 전(全)구원 과정을 주장하신다. 성도들은 스스로 순종할 수 없었으며 오직 그분의 “예”에 “아멘”하여(고후 1:20) 그분의 의를 자신의 의로 삼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이제 다시 산 자로서 성도는 주님의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행하게 된다. 이제 주심께서 그 속에 사심으로(갈 2:20) 주님께서 친히 행하신다(요 14:12-14).

증보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intra nobis)’ 그리고 ‘우리 밖에(extra nos)’ 동시에 계신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주가 되신다. 생명은 단회적 칭의의 은혜뿐만 아니라 점진적 성화의 은혜를 아우르는 총체적 개념이다.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轉嫁, imputatio)로 말미암아 성도는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고 거룩하게 되며 영화롭게 되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롬 6:22; 8:30).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교통하는 성도

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 분께서 그 안에, 그가 그 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성도에게는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하신 그 분께 접붙임 받았으니, 그 분 안에서 영원히 살고, 자라가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서는 우리의 고통을 맛 볼 수 없으시고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이길 수 없으시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이지자 사람이 되셔서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구원사역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므로써 여전히 신인양성의 중보를 계속하신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인류의 구원을 협약하시되, 성자를 구속자로, 대속을 구속방식으로, 선택된 사람들을 구원받을 백성으로 미리 작정하셨다. 이 구원협약(救援協約, pactum salutis)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주가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심은 이러한 협약을 다 이루시고 그 다 이루신 의를 이제 우리에게 다 전가해 주시기 때문이다.¹²

그리스도께서는 세례의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공생애의 사역을 행하시므로써 생명의 의를 다 이루셨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심은 그 분께서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사시고 그 육체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단지 인간의 원형(Urbild)으로 보고 그 분을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 사람으로 여기는 슐라이에르마허(F. Schleiermacher)를 필두로 하는 상승기독론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는 닮아야 할 모범(Vorbild)은 될지 언정 생명을 주시는 살리는 영은 될 수 없다.¹³

12) 구원협약은 은혜언약의 기초로서 영생에 대한 삼위 하나님의 만세 전의 작정을 뜻한다. Cf. Herman Bavinck, *Reformed Dogmatics*, vol. 3, *Sin and Salvation in Christ*, ed. John Bolt, tr. John Vriend (Grand Rapids: Baker, 2006), 212-216.

13) Friedrich Schleiermacher, *Der christliche Glaube nach den Grundsätzen der evangelischen Kirche in Zusammenhange dargestellt*, Band 1 und Band 2 (Berlin: Georg Reimer, 1821, 1822). 본서는 동

칼빈은 제 2위 하나님의 위격(hypostasis)을 논함에 있어서 그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생명을 주시는 빛이 되심을 가장 의미심장하게 제시한다.¹⁴ 아들은 “아버지의 영원하고 실체적인 말씀(Verbum Patris aeternum et essentiale)”이기 때문에¹⁵ 아들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중보함이 없으면 “가까이 가지 못할 빛”(딤후 6:16)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다. “세상의 빛”(요 8:12)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요 14:6)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생명의 원천”(시 36:9)이신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왜냐하면,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 군지 아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눅 10:22).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고후 4:6)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¹⁶ 그러므로 우리 “내면의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림을 받은 자(요 6:44; 12:32; 17:6)만이 아버지를 알게 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요 17:3).¹⁷

명으로 1830년에 제 2판이 출판. 여기서는 제 2판에 대한 Walter de Gruyter의 현대본(2008)을 사용. 영문 번역, Friedrich Schleiermacher, *The Christian Faith*, ed., H. R. MacKintosh and J. S. Stewart (Edinburgh: T. & T. Clark, 1976). 슬라이어마허에게 있어서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적 사역을 다 이루신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와 같은 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구원을 받음으로써 모범으로서 원형(Urbild als Vorbild)을 보였을 뿐이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한 인격 가운데서 구속자시며 구속된 분(Erlöser und Erlöster in einer Person)”이시라고 한다(93.3). 그리고 “구속자는 성도들을 그의 신의식의 능력으로 끌어들이나. 이것이 그의 구속 활동이다(Der Erlöser nimmt die Gläubigen in die Kräftigkeit seines Gottesbewußtseins auf, und dies ist seine erlösende Thätigkeit)”(100.제목)라고 함으로써 생명의 구원을 부인한다.

14)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l, tr. Ford Lewis Battles,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s. 20 21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1.13.7-8 (CO 2.94-96). 이하 본서는 *Inst.* 권.장.절 순으로 표기. 이하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는 CO로 표기.

15) John Calvin, *Inst.* 1.13.7 (CO 2.95).

16) Calvin, *Inst.* 3.2.1 (CO 2.398).

17) Calvin, *Inst.* 3.1.4 (CO 2.396-397).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조명되어서 생명의 빛으로 역사한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협약에 따른 아들을 통한 대속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성육신은 필연적이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시어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되 죄는 없으셨다. 그 분께서 종의 형상을 취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빌 2:7-8). 그리스도의 대속은 단순히 모범을 보이거나 도덕적, 정치적 감화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인과응보에 입각한 원상회복의 법을 이루심이다.

죄는 피로, 생명으로 속량(贖良)된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음으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레 17:11).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히 9:22).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게 하심으로써(창 22) 믿음의 의가 친히 제물이자 제사장이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미리 바라보게 하셨다. 구원이 오직 “우리의 유월절 양”(고전 5:7) 예수 그리스도의 피 제사의 공로로 말미암는다. 구약 유월절 절기 준수(출 12:1-14; 레 23:5; 신 16:1-8) 원상회복을 통한 대속의 법을 뚜렷하게 제시한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세례와 성찬의 실체가 되시므로 그 분과 연합한 성도는 그 분과 함께 거둬나고 자라감을 증언하였다(고전 10:1-4).

예수께서 흠 없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히 9:15). 그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 첫 언약에 흠이 없었다면 구속의 중보를 행하실 일이 없었을 것이다(히 8:6-7). “오실 자의 모형”으로서 처음 아

답에 의해서 예표 된(롬 5:14)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자손”으로서(갈 3:19, 16)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며 죽고 부활하셔서 “살려 주는 영”(고전 15:45)이 되셨다. 그리하여 아들의 영을 받는 자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갈 4:6; 롬 8:15).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며(롬 8:9) 머리가신 그 분께로 자라 가지 못한다(엡 4:15). 칼빈이 말한 바,

우리 주님은 아담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복종하시기 위해서 참 사람으로 나타나셨고, 아담의 인격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을 취하셨다. 이는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위해서 무름의 값으로 제시하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 값을 동일한 육체 가운데서 지불하고자 하심이었다. 요약해서, 하나님으로서 홀로 죽음을 느낄 수 없고, 사람으로서 홀로 그것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인간의 본성에 하나님의 본성을 결합하셔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성의 약함을 죽음에 내어 주고자 했으며, 신성의 능력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죽음과 씨름 하시면서 승리를 얻고자 하셨다.¹⁸

성육신하심으로써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임마누엘을(마 1:23; 사 7:14; 8:8) 성취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는 성육신으로 신인양성의 중보사역을 다 이루시고 이제 다 이루신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써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었다(요 14:16; 마 28:20). 그 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다시 사심으로써 함께 연합한 우리도 그 생명 가운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빌 3:21).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서(u'parcwn) 사람이 되셨다

18) Calvin, *Inst.* 2.12.3 (CO 2.341-342).

(evgeneto)(빌 2:6; 요 1:14). 제 2위격이신 로고스(요 1:1) 하나님께서 인간의 전 본성 곧 육체와 영혼을 취하셨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요 1:18) 사람이 되셨다. 육신으로 오신 성자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롬 9:5; 요 20:28; 딤후 2:13) 영생이시다(요일 5:20). 그 분께서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행 20:28). 그 분께서는 창조주셨으며(요 1:3) 창조 증보자셨다(롬 11:36; 골 1:16). 만물이 그 분으로 말미암음과 같이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고전 8:6).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창 2:7). 그러므로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의(창 1:26-27) 주요한 좌소(座所)가 된다. 생명이 영혼에 있다. 주님께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그 분과 함께 우리의 영혼도 음부에 던져짐을 당하지 않는다(눅 23:46; 행 2:27).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골 1:15)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시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모태에서부터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모태에서부터 사람이 되셨다. 그 분께서 마리아의 피에서 모든 인성을 다 취하셨다. 그가 여자의 후손으로서(창 3:15), 하나님의 주신바 되었으며(사 9:6),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가지로서(렘 23:5-6), 이새의 줄기에서 나셨다(사 11:1). 그리스도께서 모태에서 형성될 때부터 죽기까지의 모든 죄를 다 거저하셨다.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시고 곧 영혼이 떠나신 것은 우리의 생명을 단위로 우리를 다 구원하셨음을 선포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생명으로 잉태되시고 죽음까지의 죄를 다 대신 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명의 주”시다(행 3:15).

III. 칼빈의 요한문헌 주석에 나타난 영생관

칼빈은 공관복음을 “중보자에 관한 모든 부분들”을 다룬 “몸(corpus)”이라고 보고 요한복음을 “영혼(anima)”이며 “다른 작품들을 이해하기 위한 길을 여는 열쇠”라고 부른다.¹⁹ 요한복음과 더불어 요한의 서신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친히 듣고, 보고, 만진 바대로(요일 1:1) 생생히 전한다. 요한문헌에는 세 가지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가장 신학적인 복음서이다. 신학은 존재적, 인식적, 윤리적 관점에서 추구되는 바 요한문헌에는 이러한 성격이 잘 드러나 있다. 첫째로, 존재적 관점에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말씀으로서 제2위 성자 하나님이 되심이 부각되어 있다. 성부가 성자 안에서 성자가 성부 안에 계시다는 표현이 전형적으로 반복된다. 둘째로, 인식론적 관점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진리며 계시이시라는 사실이 부각되어 있다. 오직 아들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는 표현이 이와 관련하여 전형적이다. 셋째로, 윤리적 혹은 도덕적 관점에서 요한문헌은 그리스도와 함께 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명을 어기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표현이 특히 요한 일서에서 현저하게 부각된다.

요한문헌이 신학적이라 함은 이러한 세 가지 관점이 함께 역동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동성은 성육신한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로부터 기인한다. 주님께서

19) John Calvin,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Part One 1-10*, tr. T. H. L. Parker, A New Translation, in David W. Torrance and Thomas F. Torrance, ed., *Calvin's Commentaries*, Vol. 4 (Grand Rapids: Eerdmans, 1979, rep.), “The Theme of the Gospel of John,” 6(CO 47.VII). 요한문헌의 나머지 부분의 인용은 다음 책, John Calvin,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Part Two 11-21 and The First Epistle of John*, tr. T. H. L. Parker, A New Translation, in David W. Torrance and Thomas F. Torrance, ed., *Calvin's Commentaries*, Vol. 5 (Grand Rapids: Eerdmans, 1979, rep.). 이하 본서들에 대한 표기는 *Comm.* 성경 장.절로 표기.

생명의 말씀이신 것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의 빛의 역사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생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대속적 의 전체를 포괄한다. 요한문헌에 제시된 이러한 가르침을 고찰함에 있어서 우리는 첫째로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이 되심을, 둘째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이 됨을, 그리고 셋째로 영생의 존재적, 인식적, 윤리적 측면을 각각 고찰한다.

A. 생명의 말씀

사도 요한은 말씀에 생명이 있었다고 전한다(요 1:4). 이 말씀은 영원 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제2 위격으로 계신(“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이셨다(“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 1:1). 성자 하나님의 위격(hypostasis), 인격(persona), 위격적 존재(subsistentia)가 “말씀(Logos)”이라는 이름으로 계시되었다. 칼빈은 말씀이 갖는 이중적 관계에 주목하여 말씀을 “담화”를 의미하는 *Sermo*로 번역한다. 에라스무스를 제외한 대부분 신학자들은 이 단어를 “말”을 의미하는 *Verbum*으로 번역하였다.²⁰ 왜 칼빈이 그가 신학적으로 동의할 수 없었던 기독교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의 예를 따랐을까?

이는 칼빈이 요한복음이 전하는 말씀의 “이중적 관계”를 의미심장하게 주목했기 때문이다. 먼저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고 계신다. 이러한 관계는 단지 관계에 머물지 않고 그 자체로 존재와 경륜을 계시하니, 이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아들의 영원한 나심(*generatio*)은 곧 아들의 위격적 속성(*proprietas*)을 의미한다. 이러한 삼위일체 내적 관계 외

20) Calvin, *Comm. Jn.* 1:1.

에 말씀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이는 창세 이후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이셨다. 칼빈은 이러한 이중적 관계에 기초하여 말씀의 위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나는 그[요한]가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Sermo)이라고 부른 이유를 단순히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첫째로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이며 뜻 이시다. 둘째로 그는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는 명백한 형상이시다.²¹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이자 뜻으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는 명백한 형상이 무엇인가? 칼빈은 그것을 “생명”이라고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다고 주석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모든 만물들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생명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그러한 상태에 머물도록 생명을 주는 능력이 된다.” 즉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영원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하신다.” 칼빈은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제 2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창조의 중보사역을 감당하셨음을 전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말씀이 생명으로서 역사하는 방편으로서 빛이 주어졌다. 이 빛을 칼빈은 “이성의 빛”이라고 설명한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온전한 것은 이러한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다.²²

말씀의 생명에 부수한 빛이 모든 사람에게 “종교의 씨앗”과 “양심”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타락한 인류는 이 빛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겨진 그 “섬광들(scintille)”조차 질식시킨다.²³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신의 어둠함에 마땅한 이성의 빛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21) 이상의 논의 Calvin, *Comm. Jn.* 1:1. Cf. *Comm. Jn.* 1:18.

22) 이상의 논의 Calvin, *Comm. Jn.* 1:2-4.

23) Calvin, *Inst.* 1.4.4(CO 2.41).

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고서야 그 빛의 삶을 누릴 수 없다. 이 새로운 생명을 주는 사역을 말씀이 역시 감당하게 되는데, 이때 말씀은 “중생의 영에 따라서” “생명을 주는 빛”으로서 역사한다. 이를 특히 “참 빛”이라고 부른다.²⁴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딤후 6:16). 그 빛이 말씀 가운데 왔다.²⁵ 본래 창조와 섭리의 역사 가운데, 이제는 구속의 역사 가운데 그리하셨다. 말씀의 생명은 다시 살아나는 구속의 은총을 베푸는 동시에 “이성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어떠한 심과 뜻을 계시한다. 즉 말씀의 생명의 빛으로 “은혜와 진리”가 함께 역사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여전히 역사상 시작이 없는 영원한 말씀으로서 사람이 되셨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의 빛을 받아서 진리를 깨닫고 새 생명을 얻는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나면 죽은 문자가 아니라 생명의 법을 받게 된다. 이는 주님께서 율법의 “영혼(anima)”이 되시기 때문이다.²⁶ 칼빈은 빛의 두 속성에 집중하여 주석한다. 첫째로, 빛이 임하면 몽매에서 깨어난 진리를 알게 된다는 측면이다. 빛은 감춰진 것을 드러낸다. 둘째로, 빛이 임하면 만물이 소생하고 자라게 된다. 칼빈은 생명에는 이러한 두 속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사도 요한이 빛이 그 생명 안에 있다고 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 생명이 곧 말씀이다.

칼빈은 “생명의 말씀”을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해석한다. 영원히 계신 생명의 말씀이 이제 육신에 나타나셨다.²⁷ 영원한 생명이 나타났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로 “생명이자 생명의 근원”인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는 뜻이다. 둘째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앞에 제시되었

24) 이상의 논의 Calvin, *Comm. Jn.*, 1:5, 9.

25) Calvin, *Comm. Jn.*, 1:18.

26) Calvin, *Comm. Jn.*, 1:14, 17.

27) Calvin, *Comm. I Jn.*, 1:1.

다는 의미이다. 전자는 후자에 대한 원인이 된다. 즉 생명의 말씀이 육체 가운데 제시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만지고, 듣게 되었다는 것이다.²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는 말씀은 아들의 중보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들에게 접붙임을 받게 되어서 아들의 생명을 함께 누린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아들의 생명은 아들로서의 영원한 삶 곧 영생을 의미한다.²⁹

B. 영생의 말씀

1. 영생의 말씀을 믿음

성경의 생명 개념은 언약적 관점에서 영생으로 파악된다. 영생은 아버지가 아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시는 은총을 총체적으로 뜻한다. 영생의 가치는 아들의 공로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전가해 주시는 자녀의 의에서 찾을 수 있다. 언약에는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공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역사한다. 영생의 열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경륜에 따라서 오직 택함 받은 사람만이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영생은 다음 세 가지를 포괄하는 언약적 생명이라고 할 것이다: 생명을 시원적으로 이루시는 성부, 생명이 흘러나오는 샘이신 성자, 그 샘으로부터 생명을 길어 부어주시는 성령.³⁰

성육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빛이 있어서 그 은혜와 진리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역사한다.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누린다고 한 것은 주님께서 “떨시받는 육체” 가운데

28) Calvin, *Comm.* I Jn. 1:2.

29) Calvin, *Comm.* I Jn. 5:11-12.

30) Cf. Calvin, *Comm.* Jn. 6:57. 본 주석에서 칼빈은 “생명의 세 단계”를 생명의 자료인 살아계신 아버지, 생명이 흘러나오는 원천이신 아들, 그리고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취한 생명으로 제시한다.

생명을 담고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단지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여 받는 누리는 은혜를 특정하여 제시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누리는 “계속적인 교통”을 말씀하신다고 본다.³¹ 이러한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육체는 생명의 물이 흘러 들어가는 통로가 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생명의 원천이 됨에 따라서 그분의 육체는 우리에게, 사람들이 말하듯이, 그분의 신성 가운데 내재하는 생명을 부여하는 수로가 되기 때문이다.

칼빈은 여기서 영생하는 떡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으로 해석한다. 그 영원한 말씀이 육체 가운데 생명을 담고 오셨다. 그렇다면 그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받게 되는가? 칼빈은 여기서 그 떡을 먹는 것이 곧 믿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한다.³²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생명의 양식이며 음료라고 하시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누린다는 말씀을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첫째, 이러한 본문은 단지 성찬 예식의 은혜가 아니라 성도가 계속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둘째, 양식과 음료로 제시되는 주님의 살과 피는 곧 성육신하신 주님의 몸에 담긴 생명으로서 이는 곧 영생의 말씀을 뜻한다고 본다. 셋째, 이러한 영생의 말씀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곧 그것을 믿음을 뜻한다고 해석한다. 곧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영생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구원의 삶을 살게 되는 복음이 능력을 뜻하므로 롬 1:16의 가르침과 본질상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³³ 즉 영생의 말씀이 역사하는 생명이 구원의 질료인이라면 믿음은 그것의 도구인이 됨을 제시하

31) Calvin, *Comm. Jn.*, 6:53.

32) Calvin, *Comm. Jn.*, 6:51.

33) Calvin, *Comm. Jn.*, 6:68.

고 있다.³⁴

칼빈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는 말씀을 주석하면서 주님을 믿는 것과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전자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후자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과정이 모두 믿음의 “효과 혹은 작용”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보았다.³⁵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을 믿음 자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믿음이 없이는 그것을 통한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할 수 없다. 칼빈이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이 믿음의 “열매”라고 한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이다.³⁶

칼빈은 사도 요한이 영생을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전한 것은 영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곧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석한다.³⁷ 그리스도를 믿는 말씀을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길은 구약시대에도 이미 제시되었으나 이제는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오직 그분을 믿음이 말씀에 계시된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칼빈은 그리스도를 “율법의 마침이자 영혼”이라고 부른다.³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하나님의 자기계시가 말씀이다. 스스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곧 영생이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영생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있다. 이러한 참 믿음(*fides vera*)은 맹목적

34) Calvin, *Comm. Jn.* 3:36.

35) Calvin, *Comm. Jn.* 6:47.

36) Calvin, *Comm. Jn.* 6:35.

37) Calvin, *Comm. Jn.* 6:40.

38) Calvin, *Comm. Jn.* 5:46.

믿음(*fides implicita*)이 아니라 지식과 함께 하는 믿음(*fides explicita*)이다.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요일 5:20)라는 말씀을 주석하면서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이를 두 측면으로 설명한다. 먼저 일체적 측면에서 아들은 영생 그 자체라고 하였다. 그리고 삼위적 측면에서 성부께 숨겨져 있는 생명이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였다. 즉 성부는 생명의 “기원(*origo*)”이고 성자는 생명의 “원천(*fons*)”이라는 것이다.³⁹ 이러한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적인 생명”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왔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⁴⁰

2. 영생의 말씀의 임재: 보혜사 성령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칼빈은 본문을 말씀의 실체가 아니라 “효과”와 관련시켜 해석한다. 말씀에는 “성령의 은밀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생명을 부여하는 작용이 나타난다고 본다.⁴¹ 말씀과 성령은 함께 작용한다.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⁴² 그리하여 성도는 영적인 삶, 즉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⁴³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이 되심이 그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 하셔서 다 이루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의 전가는 그분 자신을 아는 지식과 함께 역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빛을 비추시는 능력과 작용은 그리스도의 육체적 현존에 제한되지 않

39) Calvin, *Comm.*, I Jn, 5:20.

40) Calvin, *Comm.*, Jn, 6:33.

41) Calvin, *Comm.*, Jn, 6:63.

42) Calvin, *Comm.*, Jn, 8:32.

43) Calvin, *Comm.*, Jn, 8:52.

음을 깨달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복음의 가르침 가운데서 그분의 영의 은밀한 능력으로 그분의 빛을 날마다 비추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복음과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해서 조명되어서 그분 안에 감추어진 모든 지식과 지혜의 원천을 알지 않고는 이러한 빛에 대한 충분한 정의에 이를 수 없다.⁴⁴

칼빈은 보혜사 성령의 임재로써 영원한 말씀의 생명의 역사를 설명한다. 보혜사 성령은 칼빈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특정하면서 두 가지 관점에서 그 특성을 제시한다. “우리의 중보자요 중재자로서 그리스도는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은혜를 획득하신다. 그러나 그분께서 하나님으신 한 자신으로부터 은혜를 수여하신다.” 그리스도의 영이 “위로자(Paracletus)”라고 불리는 것은 그분의 “후견 아래(sub clientela)” 모든 성도들은 영생을 누리기 때문이다.⁴⁵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에 의해서 현존하신다.⁴⁶ 보혜사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예수의 인격을 구성하던 신성이 교회의 몸 전체에 퍼진다.⁴⁷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의 “작용(efficacia)”으로 “우리 생명의 저자이자 원인”이 되신다.

우리는 공허한 사색으로는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 그리고 그분과 아버지 사이의 거룩하고 신비한 연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것을 아는 유일한 길은 그분께서 그분의 생명을 성령의 은밀한 작용으로 우리에게

44) Calvin, *Comm. Jn.* 8:12.

45) Calvin, *Comm. Jn.* 14:16.

46) Calvin, *Comm. Jn.* 14:19.

47) Calvin, *Comm. Jn.* 14:12.

게 부어주실 때이다.⁴⁸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리스도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든 은총에 참여하게 된다.⁴⁹ 이러한 생명의 은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데 이는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받는 “살아있는 수액”과 같다. 자신의 손으로 우리를 심는 모든 은혜의 저자는 아버지시지만 그 나무의 생명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고 칼빈은 주석한다. 왜냐하면 산 나무는 그 뿌리를 그리스도께 내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⁵⁰ 그리스도는 생명의 샘과 같다. 그리고 그분의 영은 그곳으로 흘러나오는 생수와 같다.⁵¹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분의 증보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실체가 분여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분의 생명과 모든 은혜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교통하는 것이다.”⁵² 즉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마다 영원한 생수의 강이 그 속에서 흐르게 된다.⁵³ 그리하여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된다.⁵⁴

칼빈은 보혜사 성령의 임재를 그리스도의 임재로 여긴다. 그분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 속으로 들어온다. 보혜사 성령은 말씀의 영이자 생명의 영이다. “성령의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분을 보

48) Calvin, *Comm. Jn.* 14:20; 15:11.

49) Calvin, *Comm. Jn.* 14:16.

50) Calvin, *Comm. Jn.* 15:1, 7.

51) Calvin, *Comm. Jn.* 7:37-39.

52) Calvin, *Comm. Jn.* 17:21.

53) Calvin, *Comm. Jn.* 7:38.

54) Calvin, *Comm. Jn.* 3:5.

기를 원하는 거울이다.”⁵⁵ 성령의 역사로 주님을 본다는 것은, 말씀 가운데 그분을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영생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한다. 보혜사 성령은 그리스도 외의 것을 주지 않으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비추신 것”을 조명한다.⁵⁶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자신의 빛 즉 생명이 아닌가? 이 생명이 은혜와 진리로 역사하지 않는가?

C. 영생의 세 속성

1. 영생의 존재

칼빈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 받아서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함으로 말미암는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질 때, 우리는 진실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영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된다. 왜냐하면 아버지 안에 감춰진 그것이 우리에게 제공되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생명의 기원이다. 그것이 흘러나오는 원천은 그리스도시다.⁵⁷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복음이 영생의 길이 된

55) Calvin, *Comm. Jn.* 16:16.

56) Calvin, *Comm. Jn.* 16:14.

57) Calvin, *Comm. I Jn.* 5:20.

다.⁵⁸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과 은총을 받은 성도는 그분을 머리로 삼는 지체들로서 한 몸으로 세워진다. 그리하여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서로 하나가 된다.⁵⁹ 이러한 연합 가운데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함께 인성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⁶⁰ 성자로 말미암아 성도는 성부와 함께 거하게 된다. 그리고 그 함께함 가운데서 성자의 중보로 성부께 기도를 올린다. 중보자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가지셨다. 그리하여 그분의 영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⁶¹

칼빈에게 있어서 영생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속에 있음을 뜻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약의 머리”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체인 성도는 언약의 약속인 영생을 누리게 된다.⁶²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며, 그분의 생명과 “계속적인 교통”을 하는 것이다.⁶³ 즉 믿음 가운데 그분의 삶과 피에 계속적으로 동참하는 것이다.⁶⁴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을 때 자신께 속한 품성을 우리에게 주신다.⁶⁵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계심을 전하는 성경 말씀들이 본질의 일치보다는 그리스도의 능력,⁶⁶ 사역,⁶⁷ 계시⁶⁸를 전한다고 주석한다. 칼

58) Calvin, *Comm.* I Jn, 5:11.

59) Calvin, *Comm.* Jn, 17:21.

60) Calvin, *Comm.* Jn, 17:22.

61) Calvin, *Comm.* Jn, 16:23-24.

62) Calvin, *Comm.* Jn, 5:20, 46.

63) Calvin, *Comm.* Jn, 6:33.

64) Calvin, *Comm.* Jn, 6:54.

65) Calvin, *Comm.* Jn, 8:36.

66) Calvin, *Comm.* Jn, 10:38.

67) Calvin, *Comm.* Jn, 10:30.

68) Calvin, *Comm.* Jn, 14:10.

빈은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로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그분의 의를 총체적으로 전가 받게 되어서 그분의 지식을 얻고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한다. 이러한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일어난다.⁶⁹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됨을 뜻하는 영생은 오직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는다. 그 빛이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⁷⁰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⁷¹

2. 영생의 지식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3). 칼빈은 본문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제시한다고 본다. 영생의 지식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믿음으로 이끌리는 지식을 얻게 되는 신비하고 효과적인 가르침”으로서, 골 3:10에 나타난 “새 사람”의 지식을 의미한다고 주석한다.⁷²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요 5:39)는 말씀을 주석하면서 구약시대 백성들이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 백성으로서 살게 된 것은 그들이 이미 그 가운데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칼빈이 강조한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였다.⁷³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첫 번째 교사이다.⁷⁴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

69) Calvin, *Comm. Jn.* 14:6.

70) Calvin, *Comm. Jn.* 8:12.

71) Calvin, *Comm. Jn.* 6:55.

72) Calvin, *Comm. Jn.* 17:3.

73) Calvin, *Comm. Jn.* 5:39.

74) Calvin, *Comm. Jn.* 15:20.

으로서 작용한다. 성령의 임재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을 결합시킨다.⁷⁵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는 “진리의 교사(magister veritatis)”가 된다.⁷⁶ 칼빈은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함은 성령의 기쁨 부음이 있기 때문이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배우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성령이 마치 도장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에 진리를 인치는데 그 감화가 곧 믿음이라는 점을 더불어 부각시킨다.⁷⁷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서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받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칼빈은 강조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을 주석하면서 칼빈은 “숨”을 “빛”과 같이 여겨서 그것이 생명과 진리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같은 맥락에서 주님께서 생명의 목자와 의의 교사가 되심을 또한 주목한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새 생명을 얻고 더불어 진리를 믿음으로 수납하게 된다는 것이다. 주님의 생명에는 지식이 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으로 칭함을 받으신다고 설명한다.⁷⁸

칼빈은 시편 주석 서문에서 자신의 중생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때 자신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만하게(docilis)” 되었다는 사실만을 전한다.⁷⁹ 새 생명으로 거듭남을 “내적 교사(interior magister)”가

75) Calvin, *Comm. Jn.*, 15:26-27.

76) Calvin, *Comm. Jn.*, 14:17; 16:12.

77) Calvin, *Comm. I Jn.*, 2:27-28.

78) Calvin, *Comm. Jn.*, 20:22.

79) 칼빈은 가르침만함(docilitas)을 중생의 표로서 인식한다(Inst. 1.7.3, CO 2.58). 칼빈은 시편 주석 서문에서 자신의 갑작스런 회심(subito conversio)을 말하면서 자신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만하게 되었다고 말한다(CO 31.21-22). 특히 기독교 강요 1권의 계시론을 마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의 지혜는 겸손히 가르침만함 심령이 되어서 성경에서 가르쳐진 무엇이든지 예외 없이 껴안는 것이다(Nam sapere nostrum nihil aliud esse debet quam mansueta docilitate amplecti, et quidam sine exceptione, quidquid in scripturis traditum est” (Inst. 1.18.4, CO

되신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심령이 육토와 같이 경작되는 것으로 설명한다.⁸⁰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면 주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기억하는데 무엇보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밝히 보게 된다(갈 3:1). 칼빈은 이러한 지식이 외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친히 대속 사역을 이루신 그분 자신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⁸¹ 주님께서 생명의 진리로서 “천상의 지혜의 빛”을 부여하시면 새 진리와 함께 새 생명이 역사한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인격 가운데(in sua persona)” 지혜와 지식을 충만하게 하심으로써 성도는 거룩함에 이른다. 이러한 진리의 충만이 생명의 임재와 다르지 않다고 칼빈은 파악한다. 곧 진리가 영생의 한 양상이라는 것이다. 진리로 기록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 전체(ad totam Christi vitam)”에 대한 “전가(imputatio)”라고 보는 것이 그 소이다.⁸²

3. 영생의 삶

보혜사 성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가르치되,⁸³ 그것을 행할 의를 그저 전가해 주신다. 그리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 새로운 생명은 새로운 생활을 낳는다.⁸⁴ 칼빈은 성도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육체가 죽고 새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⁸⁵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2.174).

80) Calvin, *Comm. Jn.*, 14:25.

81) Calvin, *Comm. Jn.*, 16:12.

82) Calvin, *Comm. Jn.*, 17:17-18.

83) Calvin, *Comm. Jn.*, 15:9.

84) Calvin, *Comm. Jn.*, 15:10.

85) Calvin, *Comm. I Jn.*, 3:24.

칼빈은 단언한다. 진리로써 옛 사람을 벗어 버린 사람은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새 삶을 살게 된다. 그러므로 지식이 없는 참 경건이 없고 생활이 없는 참 구원이 없다.⁸⁶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참빛”에 거하는 자는 참 생명 가운데서 거듭나고 사랑 가운데서 자라간다. 칼빈은 성도의 이러한 총체적 구원현상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부른다.⁸⁷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서 새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오직 성도는 자신의 구원을 삶 가운데서 확신한다.⁸⁸ 성령의 임재는 성령 가운데서의 삶을 의미하므로, 성령이 말씀과 함께 구원을 확신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웃을 사랑할 때이다.⁸⁹ 구원의 확신에서와 같이 성도가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도 삶이 있어야 한다고 칼빈은 강조한다. 물론 우리의 삶이 기도의 조건은 아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중보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확신 가운데 행하는 가운데 구하라는 것이다.⁹⁰ 이렇게 구하게 구함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신 그분의 의가 우리의 생명 곧 영생이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이미 그의 가운데 다 포함되므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⁹¹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가르침을 유일한 규범으로 여기고 지킨다. 이는 보혜사 성령이 임재로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심으로 중보자

86) Calvin, *Comm.*, I Jn. 2:3.

87) Calvin, *Comm.*, I Jn. 2:6-9.

88) Calvin, *Comm.*, I Jn. 3:24.

89) Calvin, *Comm.*, I Jn. 4:12-13.

90) Calvin, *Comm.*, I Jn. 3:22.

91) Calvin, *Comm.*, Jn. 14:13-14.

와 중재자로서 자신의 의를 전가하심으로 인격과 더불어 행위조차로 의롭다고 여기시기 때문이다. 칼빈은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증보에 연결시킨다. 구속의 의를 다 이루신 주님께서 그 다 이루신 의를 구원의 전체 과정을 통하여서 전가해 주심으로 성도는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함께 자신의 모든 은총들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거하심”은 진리를 깨닫고 새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칼빈은 주석한다. 즉 영생의 존재적, 지식적, 윤리적 의미를 함께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⁹²

칼빈은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음이 계명 자체를 새롭게 주셨다는 의미에서 아니라 그 계명을 은혜 가운데서 지킬 수 있는 백성을 조성하셨다는 측면에서 파악한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분의 제자가 된 자마다 그분의 가르침을 알고 그 가운데 각자 자신을 향한 뜻을 깨닫고 그분께 구하여서 그분께서 친히 자신 속에서 행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백성을 조성하시는 것이 율법을 완성한 의미라는 것이다. 이렇듯 칼빈은 성도가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사실 자체에서 성도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다. 영생은 주 내 안에 사심이요, 그분의 증보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는 자녀가 됨을 의미한다는 뜻이다.⁹³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명령하신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능력으로 그 가치와 정도를 가늠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의 의를 그저 전가 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새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증보는 단지 인격의 거듭남과 지식에만 머물지 않고 성

92) Calvin, *Comm. Jn.* 14:15-17.

93) Calvin, *Comm. Jn.* 13:34.

도의 삶 그 자체에 역사한다.⁹⁴ 이러한 칼빈의 입장은 다음 말씀에 대한 구속사적 의미를 제시한다고 할 것이다.

“세계가 다 네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네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출 19:5-6).

본문은 먼저 지켜 언약의 백성이 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호와와의 백성의 되어서 누리는 총체적인 언약의 복을 제시한다. 이는 산상복음의 팔복으로 제시된 은총과 동일하다. 새 생명의 은총이 있는 곳에 새 생활의 복이 있다.

IV. 결론: 영생의 주 그리스도

칼빈은 요한문헌의 주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의와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이러한 입장은 화란의 언약신학자로서 칼빈 이후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이르는 시대까지의 개혁신학을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탁월하게 파악한 뢰시우스(Herman Witsius, 1636-1708)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되었다.

행위 언약에서 아담에서 동일한 영생이 약속되었다. 그것은 율법에 의한 의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의

94) Calvin, *Comm. Jn.* 15:9-10.

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된다.⁹⁵

칼빈은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되는 의는 우리의 인격과 더불어서 행위에도 미친다고 하였다. 즉 영생은 단지 인격적 존재에 관계될 뿐만 아니라 그 삶 전체를 포괄한다고 본 것이다.⁹⁶ 바빙크가 간파했듯이 영원한 구원협약(*pactum salutis*)에 기초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으로서 영생은 그리스도의 의를 객관적으로 전가 받는 속죄론적 차원과 더불어 그와 주관적으로 하나가 되는 신비한 연합을 포함한다.⁹⁷

차알스 핫지는 에텐 동산에서 아담과 맺은 행위언약을 논하면서 그 약속으로서의 생명을 세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는 도덕적이고 지적인 생명으로서 행복하고, 거룩하고, 불멸하는 존재이다. 둘째, 그것은 하나님의 호의와 그분과의 교제로부터 흘러나오는 영광, 영예, 그리고 불멸을 포함하는 생명이다. 셋째,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영혼과 육체 가운데 전체적으로 누리는 영적이며 영원한 생명이다.⁹⁸ 영생을 구속사적이며 구원론적으로 역동적으로 파악하는 이러한 입장이 칼빈에게 있어서 현저했음을 우리는 위에서 그의 요한문헌에 주석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후 어느 개혁신의 신학자들에게 있어서보다 칼빈은 역사상 대속 사역을 다 이루신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자신의 영 가운데

95) Witsius, *The Economy of the Covenants between God and Man: Comprehending A Complete Body of Divinity*, 75.

96) 칼빈은 이 교리를 그의 첫 번째 신앙교육서에서도 천명한다. *Catechism or Institution of the Christian Religion*, 21 (19조, CO 5.336-337). 1543년 기독교 강요에서 “오직 믿음에 의해서 우리 자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의롭게 된다(*sola fide non tantum nos, sed opera etiam nostra iustificari*)”고 재천명했다(10.70, CO 1.787). Inst. 3.17.10 (CO 2.598).

97) Bavinck, *Reformed Dogmatics*, vol. 3, *Sin and Salvation in Christ*, 405-406.

98) Charles Hodge, *Systematic Theology*, vol. 2, rep. (Grand Rapids: Eerdmans, 1995), 118-119.

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칼빈은 언약을 다루면서 그리스도가 모든 언약의 실체가 됨을 강조했다.⁹⁹ 그리고 속죄론을 다루면서 그리스도의 공로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됨을 강조했다.¹⁰⁰ 곧 의의 전가가 생명과 함께 생활에 미침을 말한 것이다. 칼빈은 그리스도께서는 불순종에 대한 모든 값(*pretium*)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인격이 거듭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우리의 행위들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을 얻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실체(*vitae substantia*)”가 되신다고 보았다.¹⁰¹

개혁신학을 언약신학이라고 할진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첫 언약(행위언약)의 약속인 “영생”에 대한 고찰이 우선되어야 한다.¹⁰² 첫 언약의 조건에 대해서 불순종함으로써 받게 된 형벌과 비참함 즉 원죄의 본질과 양상은 영생을 올바르게 고찰할 때에만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¹⁰³ 학자들은 영생에 대한 깊은 숙고 없이 첫 언약을 다루면서 그 약속을 모

99) Calvin, *Inst.* 2.10. 뢰레틴은 우리가 언약의 관점에서 이해할 때 복음과 율법의 관계 혹은 그리스도와 율법의 관계는 달콤한 조화를 이룬다고 하였다. Francis Turretin, *Institutes of Elenctic Theology*, vol. 2, *Eleventh through Seventeenth Topics*, ed. George Musgrave Giger (Phillipsburg, NJ: P&R, 1994), 267-269.

100) Calvin, *Inst.* 2.17.1 (CO 2.386-387).

101) Calvin, *Inst.* 2.17.5 (CO 2.389-390).

102) 피터스(Albertus Pietiers), 머리(John Murray) 등 행위언약 개념을 부정하는 입장에 대해서, cf. I. John Hesselink, *On Being Reformed: Distinctive Characteristics and Common Misunderstandings*, 2nd ed. (New York: Reformed Church Press, 1988), 55-59.

103) 다음 책에서 저자는 영생에 관한 고찰을 결여하고 있다. 물론 주제가 아담의 죄에 한정되어 있지만 먼저 언약의 약속인 영생을 다룰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본서를 읽을 때 첫 언약을 행위언약으로 파악하는 입장에 대해서 소극적인 저자의 입장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John Murray, *The Imputation of Adam's Sin* (Grand Rapids: Eerdmans, 1959, rep.).

세의 언약에서 제시되는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¹⁰⁴ 언약에 약속된 “영생”은 성도에게 전가되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라는 관점에서 속죄론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가 성도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의 본질이 된다.¹⁰⁵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삼으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제사장으로서 그 의를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의가 영생이며 이는 곧 그분께서 우리 안에 사심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심이 그분과의 연합의 본질이다.¹⁰⁶ 영생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으로써 새 생명의 삶이자 새 생활의 삶을 의미한다. 그것은 칭의와 성화를 아우르는 전체 구원의 의를 포함한다.¹⁰⁷ 그것은 “최고 의미의 영생”으로서 종말론적 의미를 갖는 생명이다.¹⁰⁸ 그 “의”는 성도의 전체 구원 과정에 전인적으로

104)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 cf. Michael S. Horton, *Lord and Servant: A Covenant Christolog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5), 128-133; Michael S. Horton, *Introducing Covenant Theology* (Grand Rapids: Baker, 2006), 77-110. 개혁주의생명신학이라는 개념을 성경비평의 영역에서 다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육신을 강조한 다음 논문에서는 성경은 완전히 신적이며 인간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이러한 입장에서조차 자연신학적 경향을 엿볼 수 있다. Cf. Tremper Longman III, “The Promise and Pitfalls of Critical Methods: Laying Biblical Foundations for Reformed Life Theology,” 『생명과 말씀』2 (2010): 35-58.

105) Cf. Joel R. Beeke, “Calvin on Piety,”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John Calvin*, ed. Donal K. McKi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127-128. 오웬 역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그분의 의의 전가라는 측면에서 파악한다. Cf. John Owen, *Communion with the Triune God*, ed., Kelly M. Kapic and Justin Taylor (Wheaton, IL: Crossway Books, 2007), 247-270.

106) Cf. Smedes, *All Things Made New: A Theology of Man's Union with Christ*, 23-30, 특히 30. 칼빈에게 있어서 이러한 연합이 의의 전가로 여겨진 반면 칼 바르트에 이를 그리스도의 행위가 우리 안에서 실존적인 의미가 있는 행위가 된다는 측면에서 논하였다. 칼 바르트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은 우리를 위해 치른 값이라는 의미보다 우리에게 대속적 가치가 있는 행위를 일으키는 동기가 될 뿐이다. 스미드는 칼빈과 바르트의 입장을 모두 “personal transaction Christology”라고 분류했으나 그 본질은 이렇듯 판이하다.

107) Cf. George Smeaton, *Christ's Doctrine of Atonement* (Edinburgh: Banner of Truth, 1991, first pub. 1870), 186-283.

108) 박형룡, 「박형룡저작전집 VII, 교의신학 내세론」(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77), 82. 여기에서 박형룡 박사는 첫 언약의 약속인 영생과 그리스도의 대리적 속죄를 통해서 전가되는

미친다. 개혁주의 언약관이 이러한 성경적 영생관에 확고하게 기초하고 있으므로, 개혁주의의 본질을 언약신학에서 찾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칼빈의 영생관이 존재적, 인식적, 윤리적 측면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금 주목하는 이유이다.¹⁰⁹

칼빈의 영생관은 그리스도의 위격적 속성으로부터 전개된다. 그러므로 사역을 통하여서 귀납적으로 이를 논하고자 하는 소위 기능 기독교론은 칼빈의 신학과 부합되지 않는다. 혹자는 칼빈의 신학을 계승한다는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동시에 추구할 것을 제안한다.¹¹⁰ 물론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한 헛된 사변은 지양되어야 한다. 칼빈이 이것을 누누이 강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칼빈의 영생관을 통하여서 보았듯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는 영원하신 말씀으로서 생명의 빛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의 위격적 연합 가운데서의 양성의 속성교통이 전제되어야 한다.¹¹¹

우리의 생명은 생명이신 그리스도 자신으로부터 나온다. 오직 그 생명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의 즉 영생이 된다. 우리는 그분의 의를 전가 받았다. 그리하여 그분과 신비한 연합 가운데 교제하고 교통한다. 이렇듯 칼빈에게 있어서 영생은 언약에 대한 성취로서의 대속의 의에 대한 속죄론적 가치와 다르지 않다. 오직 이러한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은 사람들의

의를 동일시한다.

109) 최근에 개혁주의 언약신학을 다루면서도 영생의 개념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A. T. B. McGowan, "The Atonement as Penal Substitution," in A. T. B. McGowan ed., *Always Reforming: Explorations in Systematic Theology*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6), 183-210.

110) Cf. Robert L. Reymond, "Classical Christology's Future in Systematic Theology," in A. T. B. McGowan ed., *Always Reforming: Explorations in Systematic Theology*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6), 91-124.

111) *Inst.* 2.14.1 (Calvin, *CO* 2.353). 칼빈은 양성의 자체 교통을 주장하는 루터란 속성교통론을 비판하고 오직 위격을 통한 양성의 교통만을 강조한다.

빛이 되고 그분을 아는 지식은 곧 영생이 된다. 영생은 단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는 것이다. 즉 언약의 그리스도의 속죄를 불문하고 논할 수는 없다.¹¹²

Soli Deo gloria in aeternum!

112)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지식 행위와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 행위가 공히 생명을 표상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요 1:3-4와 요 17:3이 해석된다.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존재의 행위, 이해(지식)의 행위, 그리고 생명의 행위는 하나님 안에 내포된다. 생명은 하나님의 본질적 생명 행위이다. 그것은 존재유비적이다. 즉 구원은 생명의 분여이며 그것은 자연적인 것이지만 언약적이거나 대속적이지 않다. Cf. St.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ae*, vol. 4 (1a, 14-18), *Knowledge in God*, tr. Thomas Gornall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63), Q. 18, "On the Life of God," 114-129.

참고문헌

문병호. "비(非)성경적, 반(反)교리적: WCC의 가시적 교회일치론 비판." 「역사신학논총」19(2010): 40-61.

박형룡. 「박형룡저작전집 VII, 교의신학 내세론」.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77.

Athanasius. *De Incarnatione*. In P. Schaff and H. Wace. Ed. *A Select Library of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Vol. 4: St Athanasius: *Select Works and Letters*. 2nd series. Grand Rapids: Eeramans, 1980, 31-67.

Aquinas, Thomas. *Summa Theologiae*, vol. 4 (1a. 14-18), *Knowledge in God*. Tr. Thomas Gornall.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63.

Bavinck, Herman. *Reformed Dogmatics*, Volume 1: Prolegomena. Ed. by John Bolt. Tr. by John Vriend. Grand Rapids: Baker, 2003.

_____. *Reformed Dogmatics*, Vol. 3: *Sin and Salvation in Christ*. Ed. by John Bolt. Tr. by John Vriend. Grand Rapids: Baker, 2006.

Beeke, Joel R. "Calvin on Piety."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John Calvin*. Ed. Donad K. McKi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125-152.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l. Tr. Ford Lewis Battles.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s. 20-21.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_____.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Part One 1-10*. A New Translation. Tr. T. H. L. Parker. In David W. Torrance and Thomas F. Torrance. Ed. *Calvin's Commentaries*. Vol. 4. Grand Rapids: Eerdmans, 1979, rep.

- _____.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Part Two 11-21 and The First Epistle of John. A New Translation*. Tr. T. H. L. Parker. In David W. Torrance and Thomas F. Torrance. Ed. *Calvin's Commentaries*. Vol. 5. Grand Rapids: Eerdmans, 1979, rep.
- Gunton, Colin E. *Christ and Creation*. Carlisle, UK: Paternoster, 1992.
- _____. *The Actuality of Atonement: A Study of Metaphor, Rationality and the Christian Tradition*. Edinburgh: T. & T. Clark, 1988.
- Hesselink, I. John. *On Being Reformed: Distinctive Characteristics and Common Misunderstandings*. New York: Reformed Church Press, 1988.
- Hodge, Charles. *Systematic Theology*. Vol. 2, rep. Grand Rapids: Eerdmans, 1995.
- Horton, Michael S. *Lord and Servant: A Covenant Christolog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5.
- _____. *Introducing Covenant Theology*. Grand Rapids: Baker, 2006.
- Kaufman, Gordon D. *Jesus and Creativity*.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6.
- Kuyper, Abraham. *Principles of Sacred Theology*. Tr. J. Hendrik De Vries. Grand Rapids: Eerdmans, 1980.
- Kim, Sukho. "The Relationship between Ultimate Reality, Human Being and Nature in Korea: A Comparison of the Ecological Theologies of Chiha Kim (1941-), Pomnyun (1953-) and Hyunju Lee (1944-)."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Edinburgh. 2004.
- Lee, Sang Gyoo. "Reformed Life Theology and Korean Church: Is Theology a Wissenschaft or Leben?" In *Life and Word* 1 (2010): 69-95.
- Longman III, Tremper. "The Promise and Pitfalls of Critical Methods-Laying Biblical Foundations for Reformed Life Theology."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성경적 토대 모색」, 제 2회 개혁주의 생명신학회 정기학술대회, 2010년 6월 12일, 서울, 백석대학교: 11-30.
- McFague, Sallie. *Models of God: Theology for an Ecological, Nuclear Age*.

- Philadelphia: Fortress, 1987.
- McGowan, A. T. B. "The Atonement as Penal Substitution." In A. T. B. McGowan, Ed. *Always Reforming: Explorations in Systematic Theology*.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6: 183-210.
- Murray, John. *The Imputation of Adam's Sin*. Grand Rapids: Eerdmans, 1959, rep.
- Owen, John. *Communion with the Triune God*, ed., Kelly M. Kapic and Justin Taylor. Wheaton, IL: Crossway Books, 2007.
- Reymond, Robert L. "Classical Christology's Future in Systematic Theology." In A. T. B. McGowan, Ed. *Always Reforming: Explorations in Systematic Theology*.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6: 91-124.
- Schleiermacher, Friedrich. *Der christliche Glaube nach den Grundsätzen der evangelischen Kirche in Zusammenhange dargestellt*. Band 1 und Band 2. Berlin: Georg Reimer, 1821, 1822. Smedes, Lewis B. *All Things Made New: A Theology of Man's Union with Christ*. Grand Rapids: Eerdmans, 1970.
- Smeaton, George. *Christ's Doctrine of Atonement*. Edinburgh: Banner of Truth, 1991, first pub. 1870.
- Turretin, Francis. *Institutes of Elenctic Theology*. Vol. 2. *Eleventh through Seventeenth Topics*. Ed. George Musgrave Giger. Phillipsburg, NJ: P&R, 1994.
- Von Hügel, Baron Friedrich. *Eternal Life: A Study of Its Implications and Applications*. Edinburgh: T. & T. Clark, 1912.
- Witsius, Herman. *The Economy of the Covenants between God and Man: Comprehending A Complete Body of Divinity*. Vol. 1. Phillipsburg, NJ: Den Dulk Christian Foundation, 1990, rep.

국문초록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영생관 칼빈의 요한문헌 주석을 중심으로

문병호(Byung Ho Mun)

충신대학교, 조직신학

개혁신학은 영생의 언약과 그 성취로서의 의의 전가를 말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생명신학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이다. 개혁신학자들은 성경적 영생의 개념을 언약신학적 관점에서 전개하면서 그 속죄론적 의의에 주목한다. 영생은 언약의 약속으로 주신 선물로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며 후사로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삶의 양태라기보다는 법정적인 의의 전가의 성격이 강하다. 칼빈은 요한복음 주석을 통하여서 영생의 개념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파악한다. 영생은 대속의 의를 다 이루시고 이제 그 다 이루신 의를 전가해 주시는 중보자 그리스도의 은혜의 가치에 상응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영생은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 즉 “우리 밖에서(extra nos)” 그리고 동시에 “우리 안에서(intra nobis)” 중보사역을 계속하심으로써 그분과 연합하여 교제하고 교통하며 사는 성도의 삶을 일컫는다. 칼빈은 주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그분의 빛이 우리 안에서 은혜와 진리로 함께 역사함을 강조한다. 빛이 임하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 이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칼빈은 요한문헌 주석에서 영생의 존재적, 인식적, 도덕적 의미를 강조한다.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며,

그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과 자신을 앎이며, 그분의 뜻대로 분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칼빈은 영생의 언약적 의미를 이렇게 역동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이후 개혁주의생명신학의 길을 열었다.

주제어: 칼빈, 영생, 개혁주의생명신학, 개혁신학, 그리스도의 영

Abstract

Eternal Life in the light of the Reformed Life Theology

Centered on Calvin's Commentaries on John's Gospel and Letters

Byung Ho Mun

Chongshin University, Systematic Theology

Reformed theology, since it is based on a dynamic understanding of the imputation of Christ's righteousness and on eternal life as its gift, can be called Life theology. Reformed theologians have tried to deploy and deepen the meaning and significances of eternal life by investigating it from their covenantal and salvation-historical perspective. In doing this, they have shown their predominant concern for the merit of Christ imputed to the believers through His continuous mediation. In his commentary on John's Gospel and Letters Calvin shows his Christological understanding of eternal life. Eternal life refers to the price of Christ's grace to impute his fulfilled righteousness. It designates Christian life living in communion and communication with Christ who mediates "beyond us(extra nos)" and "within us(in nobis)." Calvin takes special notice of Christ's working as living light in explaining both the noetic and salvific affection(affectus) of His Spirit, full of grace and truth(Jn. 1:14, 17). Based on this position, Calvin here explores ontological, epistemological, and ethical significances of eternal life. Overall, for Calvin, eternal life embraces becoming true children of God, knowing God and

themselves, and living a Christian life according to God's will. In this way Calvin explores a dynamic concept of Reformed life theology.

Key Words: Calvin, eternal life, Reformed Life Theology, Reformed Theology, the Spirit of Christ

논문 접수일:2011년 2월 23일 수정 접수일:2011년 3월 28일 게재 확정일:2011년 4월 15일